



제목	이슬람 율법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살림
발행일	2013. 10. 31.
저자	공일주
출판국가	대한민국
페이지수	95
ISBN 또는 ISSN	978-8952214928

내용 요약

이 책은 율법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이슬람의 율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. 이슬람 국가에는 두 개의 법이 있는데, 하나는 알라가 준 율법인 '샤리아'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든 법인 '까눈'이다. 이 책에서 다루는 이슬람 율법은 '샤리아'이다. 샤리아는 '물웅덩이' 또는 '물웅덩이로 가는 법'이라는 본래적 의미와 '목이 마를 때 물을 찾아가는 것'이라는 파생적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. 이 책에서는 시아파가 아닌 수니파의 율법은 다룬다. 이슬람 율법은 교리학과 법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. ①이슬람 교리(교리학) ②기도, 금식, 종교 구빈세 등 인간과 알라의 관계에 대한 제도: 예배 부문(법학) ③혼인, 이혼, 매매 등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제도: 관습 부문(법학) ④지하드, 의결제도, 윤리, 처벌 등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제도: 관습 부문(법학). 이 책에서 저자는 ②③④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.

저자는 이슬람 율법이 무슬림들에게 편의와 유익을 주고 사람들 사이에 공평함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한다. 특히 자비의 정신에 부합되게 상대방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슬람 율법의 근본 취지라고 한다. 이 책에서 저자는 이슬람 율법의 4가지 근거를 설명한다. 4가지 근거는 꾸란, 하디스, 만장일치, 유추이다. 꾸란은 이슬람 율법의 첫 번째 근거이며 알라가 무슬림에게 지키라고 준 알라의 말이다. 하디스는 무함마드 사후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과 묵인한 사항들을 글로 모아 놓은 것이다. 꾸란과 하디스에서 찾을 수 없는 법적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. 꾸란과 하디스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상황의 경우에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유추를 통해 결정한다. 이러한 4가지 근거 중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근거는 꾸란이다. 꾸란의 주석 방식과 꾸란의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.